

엠마오 도상에서

누가복음 24:11-35

2020 년 4 월 26 일 오전 11 시

인생 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길이라는 말입니다. 가수 최 희준 선생님 불러,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길” 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고들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민의 길을 떠납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가게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바빌론과 앗시리아 강대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여정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알려주는 것은, 이렇게 이민가고, 팔려가고, 도망가고, 유배가고 하지만,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매서운 밤 기온으로 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빌론에서 앗시리아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경은 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캐나다 연합 교회가 만들고 채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과 죽음 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 믿음의 내용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요즘 함께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믿음의 조상들의 여정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엿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바로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이 땅에서 여정을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혼자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고 계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걷고 있었습니다. 앞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무슨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참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 어디서 왔소? 이 소식을 모르는 자가 아마 당신 뿐 일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있었다는 하네요. 거기 천사가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가 보았는데, 정말로 무덤이 비워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난 일이요. 우리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니 그 것 모두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 아닙니까?”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성경에서 예언되어 진 사건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였는데, 두 사람이 “날이 어두워졌는데, 저녁 우리랑 같이 하고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떠겠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를 받고, 엠마오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행인이 떡을 들어, 감사 기도 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이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놀라고 기뻐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어. 와우. 이게 무슨 일이냐?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가서, 11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진정 다시 사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초대 교회에서는 성만찬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성만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야기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또한, 두 사람의 여정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이야기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혼란에 빠져있고, 희망을 잃은 두 사람을 찾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두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12 제자 중의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12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 두사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여서, 따랐던,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며는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던 여인들 중의 한 사람이, 글로바의 부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글로바랑 같이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그의 부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부인이 아니면 글로바의 친구였을 터인데, 누구이든 간에,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제안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가는 설명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2 제자 들 중의 두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누가가 소개하게 된 것은, 부활의 사건은, 선정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사건이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이 캄캄한 때입니다. 낙심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슬픔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입니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로 소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 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 라고 선언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지를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지 아십니다. 어떤 고민가운데 있는 지 아십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슬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코비드 10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온 세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0 년이 참 어려운 여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감을 잡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새 기력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후레데릭 비크너 목사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은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상식적으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불확실것이 가득찬 이 세상을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게 될지,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질 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어, 이끄시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불확실한 내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나아가실까,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고, 아하 감탄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부모님만 옆에 있으면 마냥 좋아하고, 마냥 즐거운 어린아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마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나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관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계속 더 가려고 했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무시하고, 밀어부치면서 마구 들어오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며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문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을 잘 보며는, 문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문고리는 안쪽에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맞이할 때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들어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떡과 잔을 떼고 함께 마실 때에 만나게 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에 만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할 때에, 또, 교우들과 함께 친교하며 사역을 위하여 회의 할 때에 만나게 됩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때에, 만나게 됩니다. 자연 가운데 정원 가운데 숲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면 들어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도구라고 하지요.

한가지가 빠졌네요. 기도할 때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6 장 6 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 마디로 기도할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만나시어, 우리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깨져있으면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외로우면 친구가 되어 위로해 주시고, 지쳐 있으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갈증이 심하면 시원한 생수를 주시고, 어찌해야 좋을 지 모르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향심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침묵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 생활입니다. 말 없이, 주님의 현존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기도생활입니다. 침묵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헨리 나우웬 신부는 “침묵 가운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자유를 베풀기 전에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즘, 모든 것이 멈춘 상태입니다. 모두들 집에 있어야 하는 요즘 조용합니다. 도로도 한산하고, 사람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 졌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만나는 기회를 갖기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기도생활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함께 걷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열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사셨습니다.”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새롭게 힘찬 여정을 밝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매일 매일의 여정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당당히 곳곳이 헤쳐 정진하여 나가기를 축원합니다.